

‘SWEET 2022’ DJ센터서 개막

신재생에너지 기업 250곳 참여
대·중소기업 혁신기술 구매상담
글로벌 태양광컨퍼런스 등 다채

국제 신재생에너지 전시회인 ‘SWEET 2022’ (Solar, Wind & Earth Energy Trade Fair)가 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하고 3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개막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김경만 국회의원·오영교 동반성장위원장·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 22개 기관·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해상풍력·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ESS)·이차전지 등 미래 에너지 신기술과

신제품이 전시된다.

한전·한전KDN·한전KPS 등 에너지 공기업과 유니스·스코트라·비에이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대표 기업 등 250개 사가 참여해 500개 부스를 운영한다.

동반성장위원회와 광주시가 공동 주최하는 ‘동반성장 페어’가 동시에 열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혁신성장 및 상생협력을 지원하는 동반성장 페어의 부대행사인 ‘혁신기술 구매상담회’에는 75개 기업이 참여해 중소기업과 1대1 현장 상담을 진행한다. 인도·스리랑카·미얀마 등 21개국이 참가하는 수출상담회가 코트라와 공동 주관으로 개최된다.

한국태양광발전학회가 주최하는 글로벌태양광컨퍼런스(GPVC 2022)에는 국내·외 석학들이 대거 참가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전기기술인협회, 한국화합융합시험연구원,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의 세미나, 공청회 등이 마련됐다.

개막식에 앞서 광주시는 한국전지산업협회·세방리튬배터리·인셀과 배터리 신산업 기반 조성 및 산업육성, 전기차용 배터리 모듈, 팩 시스템 시험평가센터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전남은 한전이 자리 잡고 있으며, 석유화학단지 인근이 아닌 대도시 인근에서는 처음으로 광산구에 중규모급 수소 생산기지가 착공되는 등 ‘에너지 신산업 중심 도시’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코로나 일상 회복’ 대인예술야시장 9일 개장

11월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광주시는 코로나19 완화로 일상 회복이 이뤄짐에 따라 9일부터 대인예술야시장을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흑서기를 제외한 매주 토요일에 ‘남도달밤야시장’으로 새 단장해 광주의 주말 밤을 시민들과 함께 한다.

대인예술시장은 지난 2013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된 이후 2018년에는 한국관광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되는 등 시장 우수사례로 꼽혀 지역 대표 예술시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첫 개장일인 9일에는 푸드장터, 스마트 문화예술 체험, 음악 공연, 개장 특별 미술 작품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

푸드장터는 상인들이 운영하는 부스를 배치해 다양한 먹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한국식 가와를 덧입힌 예술적인 푸드 마차가 새롭게 선보여 야시장의 분위기를 한껏 살리고 함께하는 시민들에게 일상의 즐거움을 제

공할 예정이다.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으로 도자기 만들기 물레 체험, 핸드페인팅 체험 등이 마련돼 자신만의 작품을 제작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를 이용해 증강현실(AR) 메타버스 관광체험을 즐길 수 있다.

남도달밤야시장의 개장을 축하하는 음악 공연에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버스킹 그룹, 전통문화 예술단, 오페라단이 펼치는 팝과 클래식 음악, 전통 소리와 무용이 어우러져 한여름 밤의 무대위를 시원하게 날려 줄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설전시 공간인 수작과 한평갤러리에서는 야시장 개장을 축하하는 고승영 작가, 심보현 작가 등 광주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이 전시 판매된다.

남도달밤야시장은 7월에는 9일과 16일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열리며, 8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는 날씨, 기온 등을 고려해 일부 시간을 조정해 매주 토요일에 운영한다.

/길용현 기자

여성창업 정책 대전환 정책토론회

여성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기술기반 여성창업 활성화

2022. 7. 6 (수) 10:00~12:00

국회 의원회관 제소회의실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무경

국민의당 국회의원 김경만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창업 정책 대전환’ 정책토론회 ‘여성창업 정책 대전환’ 정책토론회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상민 행안장관 “경찰 장악설 어불성설”

광주경찰청 방문…제도개선 논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이 6일 호남지역 경찰을 만나 “경찰 장악설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히며, 이른바 경찰국 신설 등 경찰제도에 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광주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제도개선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으로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 신설로 치안 일선에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경찰에 대한 새로운 통제가 생기는 것도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바뀌는 것은 그간 비공식적으로 잘못 운영하던 청와대의 직접적 경찰 지휘·감독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정한 공식적 절차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라며 “역대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또는 치안비서관실에 파견된 행장관 등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밀실에서 자료도 남기지 않고 경찰 인사



등을 했으나, 이는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는 청와대 민정수석 및 치안 비서관을 폐지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예측할 수 있고 투명하게 행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며 “일선에서 달라지는 것도 없고 동요할 필요도 없으며 기존과 같이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앞으로도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면 된다”고 했다.

신설조직의 성격에 설명한 이 장관은 “15~20명 규모로 만들어지는 신설 조직에서 13만명 경찰을 통제하고 장악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치안 일선에 변화가 생기거나 경찰에 새로운 통제를 가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환준 기자

미국 LA 토렌스에 전남 농식품 판매장 개장

K푸드 수출 전초기지 기대

미국 LA 고소득 인구 밀집 지역인 토렌스에 전남 농수산식품 전용 상설 판매장이 문을 열고 영업을 시작했다.

전남 농수산식품 전용 해외 상설 판매장 22호점(8개국)으로, 미국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식품 전문 유통매장을 운영하는 한남제인이 새롭게 문을 연 델라모점에 들어섰다.

개장식에는 한남제인 하기환·김진수 회장, 구정완 사장과 패트릭 푸레이 토렌스 시장,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조지 켄 신임시장, 시의

원을 비롯해 현지 유통사와 언론이 대거 참석했다. ‘한남제인 델라모점’과 ‘전남 농수산식품 상설판매장’에 대한 지역사회의 뜨거운 반응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대형 백화점이 있는 쇼핑 중심지에 위치한 한남제인 델라모점은 은행, 푸드코트와 각종 편의 시설 등이 입점한 프리미엄 마켓이다. 전체 매장 3,200㎡ 중 전남 상설 판매장은 46㎡ 규모다.

전남 상설 판매장에는 김, 찹쌀, 홍어 등 수산물물을 비롯해 반찬, 양념 등 도내 83개 수출기업의 240여 제품이 전시 판매된다. 전남의 우수한 농수산식품이 미국 시장에 확산하도록 시식과

신제품을 소개하는 판촉행사를 연중 진행하는 등 다양한 홍보 마케팅을 펼 계획이다.

한남제인은 미국 서부 지역에 7개 유통매장을 통해 연간 1억 달러의 한국산 제품을 수입 판매하는 한국식품 전문 유통기업이다. 이 중 5개 매장에 전남 상설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한남제인 관계자는 “전남 상설 판매장이 입점한 한남제인 4개 매장에서 전남산 제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이 뜨겁다”며 “델라모 매장은 매장 입구 가장 눈에 띄는 장소에 전남 상설 판매장을 배치해 현지인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박정현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내정

신임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에 박정현 해남군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61·사진)이 내정됐다.

6일 전남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박정현 내정자는 해남 출신으로 지난 2011년 해남군체육회 선임이사로 활동했고 2013년 해남군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선임돼 10년간 장애인체육 행정을 맡아 왔다.

박 내정자는 전남장애인체육회 이사과 부회장, 시·군장애인체육회 협의회장을 맡아 전남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 힘써왔으며 다양한 경험과 함께 소통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체육계 이외에도 범죄예방협의회, 의용소방대, 교도소 교정위원, 경찰발전위원회, 민주평통자문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다.

박 내정자는 “시·군 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등과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전남장애인체육회를 새로운 변화와 혁신으로 이끌어 장애인체육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환준 기자

전매광고안내

전남매일 광고는 전화 및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모집·매매·부동산·공고·영업·분양·모임

- 광고국 062) 720-1016, 1017
- 팩스 062) 720-1020
- 이메일 jnmi1000@hanmail.net

여수시 공고 제2022-1929호

도로구역 결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소라면 봉두·상봉 시도25호선(3구간) 개설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결정을 위하여 「도로법」 제2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는 열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7일

여수시장

1. 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사업소재지(위치)	사업내용	사업소재지의 명칭(상향) 및 주소
도로사업, 소라면 봉두·상봉	전남 여수시 소라면 봉두리	0면적 및 규모 - 면적: 39,728㎡ - 규모: L=1,727m, B=9m	여수시장 / 여수시 시청로 1

2. 도로 구역 결정·변경하려는 사유

○ 여수시 소라면 봉두리 일원 시도25호선(3구간) 개설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통행 불편 해소 및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3. 사업기간: 도로구역결정 고지일 - 2025. 12.

4. 도로구역 예정지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열람

- 열람기간: 2022. 7. 7. ~ 2022. 7. 21. (14일간)
- 열람장소: 여수시 도로과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동 1길23호 (학동))
- 열람방법: 여수시 도로과에 비치된 자료 열람

5.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열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열람기간 종료일까지
- 제출방법: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열람장소에 제출
- 문 의 처: 여수시 도로과 (☎061-650-4077)

6. 편입 토지 확인: 여수시 홈페이지(고시공고) 참조 및 도로과 방문 열람

전남매일 연중 일자리 창출 캠페인

여러분의 취업성공, 활기찬 경제도시 남구가 함께합니다

남구 일자리박람회 607-2672

취업상담 및 알선 607-2675

남구 공공일자리 607-2673

남구 취업지원센터

개별 11일은 인구의 날

도와주는 아빠에서 함께하는 아빠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 불균형 개선 전라남도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

전라남도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

가 함께 합니다

NAVER 드림꽃도매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축화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정품 화환 75,000원 재사용 화환 50,000원

Tel. 062) 233-9961 Fax. 672-9961 동흥 박매성 302-0316-649511